

도서자원의 문화관광산업화와 관광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

김성후

동신대학교 교수, 제1저자

(kimsunghoo2000@hanmail.net)

오성수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박사과정수료, 교신저자

(starnet555@naver.com)

본 연구는 도서(섬)자원의 문화관광산업화 및 관광스토리텔링을 통해 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때 국내 최대의 섬 축제로 인식되었던 제주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배경 및 의의와 성과를 고찰하였고, 당시의 문헌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패 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도는 축제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준비나 지역민의 참여 부족, 재원조달 등의 한계로 지역주민은 물론 국내외에서 실패한 축제로 평가 받아 향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섬인 홍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도서의 민속문화에 대한 의의를 고찰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의 산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내 관광안내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녹색관광에 대한 개발의 중요성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치 전략수립 등 9가지를 제시하였다. 또 홍도의 특징과 자연 및 인문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각종 문헌과 현황 등의 고찰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주제어 : 관광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도서관광개발, 해양관광, 체험관광

1. 서론

섬은 지리적 특성과 인구의 감소 등 자연적인 요인 등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발전이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

▷ 논문접수(2012. 5. 7), ▷ 심사완료(2012. 5. 12), ▷ 게재확정(2012. 6. 15)

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섬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서남해에 촘촘히 박혀 있어 '다도해'로 불리는 섬은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던 산업화시대에는 도시의 근로자를 충당하던 원천이면서 소외의 대상이 되었지만, 탈산업화시대에는 관광서비스산업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개발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다도해에 펼쳐져 있는 섬은 그동안 교통의 불편으로 접근성이 차단되어 거주여건과 산업여건이 불리하였지만 이제는 연도교와 연륙교의 연결을 계기로 투자여력이 미치고 있고 동북아 관광중심지로서 대대적인 해양관광개발이라는 의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특수성을 활용한 관광개발에 있어 섬의 주제와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관광스토리텔링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옥스퍼드(Oxford, 1989) 영어사전에 의하면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the action of telling stories)'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story'는 과거의 이야기 한 것을 의미하고, 'tell'은 구연되는 현재상황의 강조라 할 수 있다(Brown et al., 2005). 김숙자(2009)는 스토리텔링을 이야기 속에 깔려 있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김희정, 2012)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관광상품이나 관광지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관광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고 하였다. 또 주 무대가 되는 관광지는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 물리적 상징적 경관에 의해 구성된 실제로 대두되고 있다(Saarien, 2004).

이에 본 연구 제 II장에서는 개발여건과 정주 및 편의여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에서 종합개발 일환으로 시행했던 섬문화축제의 추진 사례와 실패 결과를 고찰해보고, III장에서는 전라남도 도서의 민속문화의 의의와 특성을 정립하였다. IV장에서는 도서 민속문화자원의 활용가능성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향 및 흥도의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스토리텔링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제V장 결론에서는 지역의 각종 유무형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1998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

2.1.1. 추진배경 및 개요

지난 1998년 열린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 관광 이벤트로 발전시켜

21세기 제주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 이벤트의 다양한 축제를 통한 차별화, 섬문화의 번영과 연대를 위한 세계 섬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지역특성을 살려 동북아 20억 관광시장의 중심무대로 도약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1997년 5월 학계, 언론계 및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사)제주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발족하여 해외 참가 대상 섬에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그 후 해외유치섭외단을 6회에 걸쳐 17개 섬에 파견하여 섬문화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참가 협정서 조인식을 가졌으며, 1997년 12월에 해외 25개 참가 섬을 확정 지었다.

1998년 4월에는 축제참가 관련실무자 회의가 제주에서 열렸는데 섬대표 실무단이 3박4일 동안 제주에 머무르면서 실무협의 및 행사장 답사, 시장조사 등 행사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고 토의했다. 대부분 도서정부 관광 및 문화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의를 통해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세계 25개국 28개 섬 870여명이 참가하여 제주시 오라관광지구 10만여평에서 1998년 7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27일간 펼쳐졌다. 고립과 단절 속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독특하게 형성된 고유의 민속문화, 외부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서인의 문화, 유배지 또는 항해 도중 피난처로 활용되었던 섬에서 형성된 혼합된 문화 등 섬의 전통적인 민속문화의 장을 세계인들이 한자리에서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개최식에는 참가국(참가섬)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인사와 일반관객 등 약 1만여명이 참석하여 제주도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1.2. 축제 추진상황

참가 섬들은 문화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표 1> 과 같이 5개 지역관에서 공연과 전시를 동시에 전개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품격 높은 도서문화를 관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 섬의 공연활동은 지역관공연(885회), 주제관공연(58회), 대공연장공연(69회)으로 진행됐고, 참가섬 전시물품은 각 섬에서 기획·준비·운송되어 78개 부스에서 전시되었다. 기념품은 참가 섬의 고유 민속물품에 한하여 판매가 허용되어 일부기념품의 판매는 관람객의 열띤 호응 속에 판매되었으며, 먹거리는 각 섬 고유의 음식에 대한 시식·시음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공연뿐만 아니라 각 참가 섬의 전통음식·공예품 판매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

<표 2>와 같이 축제기간 동안 총 관람객 수는 44만1천290명이며, 일본 관광객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에 대한 무료 혜택을 부여하여 축제에 대한 참가

및 노인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축제의 홍보활동은 '98 제주세계 섬문화축제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 확산 및 방문객 모집 극대화 와 축제의 당위성 및 세계 섬 문화 중심지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다. 개최지인 제주도의 분위기 조성 과 내국인 참여 극대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본 관광객 유치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참가 외국 섬을 위주로 한 팸 투어 및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쳤는데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홍보 실적은 <표 3>과 같다.

<표 1>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참가섬 현황

대 양 별	참가섬수	참 가 섬	비 고
태평양1	6	대만, 해남(중국), 세부(필리핀), 사할린(러시아), 오키나와(일본), 하롱베이(베트남)	
태평양2	5	파푸아 뉴기니, 페낭(말레이시아), 타즈메니아(호주), 북마리아나스, 팔라우	
태평양3	4	서사모아, 하와이(미국), 타히티, 칠로에(칠레)	
인도양관	5	마다카스카르, 스리랑카, 모리셔스, 잔지바(탄자니아), 안다만니코바(인도)	
카리브해 지중해	5	도미니카 공화국, 자마이카, 시칠리아(이탈리아), 크레타(그리스), 샤프테냐(이탈리아)	
한 국	3	제주도, 거제도, 진도	

<표 2> 관람객 현황

총입장객	유 료 입 장 객			무 료 입 장 객		
	계	내국인	외국인	계	입장시간내	시간외
441,290명	238,522	219,743	18,779	202,768	154,286	48,482

※ 외국인 입장객 국적별 현황(추정): 1만8천779명.
(일본 1만1천여명, 중국 2천여명, 홍콩 2천여명, 대만 500, 기타 3천279명)

<표 3> 홍보활동

구 분	홍 보 매 체	홍보횟수	비 고
기사보도	• 중앙 및 지방일간지	310회	
	• 전문지 및 특수지	80회	
광 고	• 외신일간지(일본, 홍콩, 중국, 대만 등) - CNN, SKY, AP,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62회	
	• 중앙방송(KBS, MBC, SBS 등의 뉴스 및 특집)	19회	
광 고	• KBS 중앙방송 스포츠 광고	80회	
	• 지방언론사	17회	

2.1.3. 축제의 평가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추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해외 참가단에 대한 참여 섭외가 마무리 된 단계에서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 경제위기를 맞이했다. 관광객 감소에 따른 입장료 수입의 차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기간 중 국내외 참가 섬과 도내 공연단의 열정적인 공연 속에서 막을 내림으로써 몇 가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제주도가 전 세계에 있는 섬들의 문화를 한데 묶어 이를 축제로 부각시킨 것을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세계 섬 주민들의 문화적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처음 시도된 축제로 세계 언론은 물론 축제 참가국에 제주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제주도내 인적 자원과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경험 축적과 국제적 안목을 높일 수 있었다. 축제기간 동안 500명 이상(주로 청소년층)의 자원봉사자들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노력했으며, 축제 운영자 및 자원 봉사자들이 국제행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넷째, 여름철 문화 관광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데다, 습한 아열대성 기후로 인해 여름철 관광지로서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도약으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축제로서 제주대학교 관광연구소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행사를 통하여 제주지역에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175억 3천300만원이며, 홍보효과는 22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행사의 총예산이 12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성공적인 축제였음을 알 수 있다(제주일보, 2005. 1. 15).

그러나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축제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지적되었다. 예산 뒷받침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시설, 운영, 연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하며,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공연할 수 있는 전천후 기반시설 구축 및 불투명한 수익 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활발한 수익 사업을 선정하여 적자발생을 방지해야 하고 장기간에 걸친 마케팅활동으로 외국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이 극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4.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중단과 총평

21세기는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관광산업의 방향은 국내에서 세계시장으로 돌려야 할 시기이다. 제주관광산업에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세계인들을 제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의 이질성

(Culture Shock)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세계섬문화축제는 문화의 이질성을 좁히고, 섬만이 지닌 독특한 문화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하여 세계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야 했다.

축제기간 중 세계화추진 제주협의회는 공연단 일부를 회원의 집에 초청하여 제주의 음식 문화와 놀이문화를 소개하면서 두터운 우정을 나누기도 하였다. 행사가 끝난 직후 한 동안은 축제에 참가했던 외국인들과 편지왕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참가 섬으로부터 방문초청도 받는 등 민간국제교류의 한 일면을 보여줬다.

해외 25개 참가 섬은 차기 대회에도 참가할 것을 약속하면서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도민들의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는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와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한국의 제주도가 아니라 세계의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본래의 기획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국비 등 수십억원을 들여 세계 섬의 고유 민속을 보여주는 '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대표 축제로 키우려 했지만 축제 대행사와의 불협화음과 운영미숙으로 2001년에 치룬 2회를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즉 '실패한 축제'란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은 지역축제의 '주먹구구식'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¹⁾.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제주지역 축제는 관광효과보다는 이벤트성 축제, 지역특성을 활용한 축제개발 미흡, 축제 기획력 부족, 홍보체계 미숙, 전문적인 평가시스템과 인력자원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제주대 관광경영경제연구소도 "효율적인 조직체계가 미약하고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 부족, 객관적인 축제평가체계 미흡과 재원 조달의 한계 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3년 폐지된 섬문화축제에 대해 도민 46.2%가 부활에 찬성했지만 부활을 반대한 도민도 32.9%에 달했다. 따라서 제주도가 야심차게 시행했던 축제의 기획 의도는 좋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고 행사진행의 미숙과 예산지원의 한계 등으로 실패한 사례로 지적된다(제주일보, 2005. 1.15).

제주도가 다양한 테마와 매력을 갖춰 한국의 대표적인 도서관광지역이지만 아직 세계적인 섬으로서의 흡인력과 경쟁력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관광시설과 관광행사를 위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실여건을 벗어난 인위적인 테마의 부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1) 제2회 '2001 세계섬문화축제'는 '섬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2001년 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한 달간 제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축제에는 세계 26개 섬과 몽골·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 등 5개 특별 초청지역, 일본 시즈오카 등 7개 자매결연지역 등 모두 29개국 27개 지역이 참가했다. 제2회 축제는 메인 축제장인 제주시 오라관광지구 외에 성산일출봉 등 도내 5곳으로 축제의 장이 확대됐다.

제주도의 관광개발 실패는 기타의 소규모 도서가 관광개발을 위해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초기단계에서 무리한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살리는 이점이 있지만 관광여건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패로 귀결되기 쉽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소규모 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역의 유무형 관광자원을 테마와 매력물(attractions)로 부각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선행작업의 일환으로써 문화관광의 추진,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 또는 관광스토리텔링 사업은 소규모 투자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주도의 사례에서 확인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I. 전남 도서의 민속문화

3.1. 도서 민속문화의 의의

21세기 들어 지역고유의 문화자원은 학생들이나 지역민에게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인식하는 교육적인 자료인 동시에 현대인들의 문화적 소비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자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역사유적을 학교에서의 교육자료로 이용하는 한편 현대인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요구된다.²⁾

도서지역은 바다에 의한 고립과 한정된 영토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닌 도서성(insularity)으로 요약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구속력에 대해 도서민들이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만들었다. 더구나 도서문화는 아직까지도 비교적 잘 간직되고 있어, 이를 전승·보존·수집이라는 기본적 임무 외에 계승 활용할 경우 어느 지역의 문화자원 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다와 섬, 그리고 연안을 중심으로 잠재되어 있는 문화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원료를 제공해 주는 일은 매우 시급하게 요청된다.³⁾

2) 최성락 외, “전남지방 고대유적의 보존과 활용방안”, “전남의 고대유적 보존 및 활용방안”, 전라남도, 2000. p. 79.

3)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이란 주어진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체계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면을 말한다. 즉 사람들,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 등과 관련된 유적, 유물, 건축물 및 역사자료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a)선사유물·유적, (b)불교유물·유적, (c)유교유물·유적, (d)관방유물·유적, (e)도요지 (f)생활유적 등을 말한다.

3.2. 민속문화의 특성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상회하면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도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서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문화상품의 개발은 지역문화 보호와 지역정체성 확립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도서문화자원은 조사·수집도 중요하지만, 그 수집된 정보가 많은 사람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우수한 문화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향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서문화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롭게 강화하는 한편 원천정보나 원천자료를 현대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도록 변형시키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업⁴⁾이 필요한 시대적 흐름에 착안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증대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으로 문자, 음성, 영상 등의 구분이 없어지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통합·수렴화 되어가면서 나타난 새로운 개념의 문화의 대중화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만의 역사성, 문화성, 독특함과 다양성을 지닌 도서문화의 요소를 어떤 콘텐츠로 개발하고, 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 서남해 도서지역은 살아 숨쉬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민속문화자원이 산재해 있다.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데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서남해 도서지역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접근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다(김재원 외, 1957). 그러나 연구내용이 주로 문화요소를 찾아내는 작업 즉, 일종의 박물관적 작업이 주였으며, 그 결과 문화요소의 지리적 차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환경과의 상관성 규명 등 문화현상의 규명보다는 문화 그 자체의 현상 파악에 머물러 왔다(조경만, 1996).

또한, 문화자원조사가 주로 연구소나 문화 관련 기관의 주도로 조사되어 왔으며 [표 1], 조사가 대부분 자연환경 특성 및 역사적 배경에 기반한 생태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과 같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설정된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기능적이고 총체적인 자료파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이기철, 1996).

또한, 문화자원 요소들의 목록화(inventory)⁵⁾ 및 분포도 작성이 거의 안 되어 있다. 부분

4) 문화자원 콘텐츠개발은 문화라는 중심축에 정보화가 결합되어 비디오, 음반,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테마파크 등 다양한 주제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으로 매핑작업이 되어 있는 문화요소도 있으나 대부분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형태에 머물고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다(신순호, 1998). 이는 문화영역(culture area) 설정이나 문화 자원들의 분포, 구성 등 제반 특성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제약을 주고 있다. 설사 디지털 맵으로 제작되어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유물·유적 지도에 불과하다. 객체적인 역사문화유적 지도를 뛰어 넘는 문화의 표현방식의 개발이 요구된다(조경만, 1998: 417). 그리고 조사 및 연구결과와 체계적인 DB화가 미비하며, 더욱이 GIS를 이용한 DB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다⁶⁾. 그 결과 문화자료의 중복된 수집,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 조사자료 누락 파악 등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표 4> 서남해 도서문화자원의 주요 연구기관

조사 기관 (간행물)	발행	주요 분야	조사 내용	형식
국립중앙박물관	1954	역사 유적 민속	생업, 의식주, 가족, 친족, 파시, 민간신앙, 방언, 선사유적 등	자료집
문화재관리국 (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80	민속	민요, 민간의례, 의식주, 친족, 민간신앙, 방언, 선사유적 등	자료집
목포대도서문화연구소 (도서문화)	1-18집	고고, 역사문화, 인류민속	압향조 및 친족, 역사적 사건, 선사유물과 유적, 민가, 생업도구, 생업기술 관행, 의례, 방언, 구비문학, 사회조직	논문및 자료집
한국도서학회 (한국도서연구회보)	1-10집	지역경제 관광 해양	지형과 지질, 식생, 교육, 해양환경, 농수산물 및 산업, 유통, 관광자원, 지역개발 등	논문집
전남대호남문화연구소 (호남문화연구)	1-27집	사회, 문화인 류	사회조직, 역사적 사건,	논문집
기타*	부정기	자연, 식생 등 다양	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문화요소 항목이 다양함	다양

*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남도문화연구) 2집. 목포대 박물관(진도, 신안, 완도 문화유적조사), 기타 (한국자연보전협회와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보고서) 등.

- 5) 각종 문화자원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지역문화 양상들을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정리된 문화자원 데이터화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언어는 방언특성, 민요는 음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 6) 이기철은 관련 학자들의 공동학술연구를 통해 개별 연구자나 연구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수행해 오던 조사방법, 연구결과물 자료정리 및 관리방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금까지의 방식 중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양하고 가장 이상적인 모형을 개발하여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 통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자원의 보존·보급 역시 아날로그 형식인 문서(도서나 보고서로 발간), 영상(사진, 녹음기, 비디오) 형태가 주가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몇몇 분야를 대상으로 주로 민간업체에 의해 CD-ROM 타이틀이나 Web-Page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수량이 많지 않다.

이러한 서남해 도서문화자원 연구의 한계성을 조정만(1998)은 문화자원의 의미와 인지와 경험 세계에 대한 분석, 해석, 기획, 운용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미비로 설명하고 있다.

IV. 해양관광자원과 도서관광 개발방향

4.1. 도서의 문화관광자원 가능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 관광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민소득, 여가시간의 증대 및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말부터 관광이 ‘굴뚝 없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를 계기로 한층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내의 역사문화자원, 자연자원 등을 단순히 존재론적 시각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려는 경제자원으로 보는 관점으로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관광개발양상을 살펴볼 때 관광개발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측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에 자원적 특성이 있다고 해서,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섬에 대한 상당히 괄목할만한 투자로 연륙교가 다수 개설되는 등 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섬지역으로서 비교우위를 갖지 못한 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남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해양관광자원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도시민들이 찾아주는 것에 지역의 관광사업자들이 감지덕지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활용될 뿐이다. 매년 섬을 찾는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반해 도서민의 소득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인구유출이 이어지는 악순환도 이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1954년 제정된 이도진흥특별법에 따라 섬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섬을 만들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섬 관광의 천국이라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도 각각의 섬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상기한 국가의 도서정책 사례를 분석해 보면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즉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보존,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특화, 도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통로 확보, 정부의 적절한 정책 등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해양관광의 기본 이론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면 육상관광에서 해양관광 레저로 이동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전남의 섬을 물리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대규모 투자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도서관광정책으로서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요소 등을 활용한 체험형, 테마형 관광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2. 도서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향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시대로 불린다. 다도해에 별처럼 솔하게 박힌 섬들은 각각 크기와 형태도 달라 언뜻 보면 산개되어 별개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가진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 속에 인간과 지역을 매개로 하여 연결고리가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산개된 섬들을 엮어 주거나 기능에 따라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방식으로 개발하려는 의지부족이다. 따라서 이 같은 연결성을 네트워크화 시키고 산업화 시켜야 한다. 참고로 후진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의 산업화’는 국제화시대의 명제이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으로도 문화산업진흥법을 마련하는 등 관심을 쏟고 있다.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도서의 지역독자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전라남도에서 문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설정해 추진중인데 가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즉 의미화, 주제화, 정보화, 디자인화, 마케팅화 등이다.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에 내재된 의미를 최대한 찾아내고 주제별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대적 감각과 국제적인 시야를 반영한 디자인화, 과학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정보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과 연결되는 마케팅화이다.

도서지역과 해안지역에 분포한 다양한 문화유적지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서남해안이 테마

관광지로서 문화관광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산업이 제4차산업의 하나로 각광받는 추세에 따라 향토축제의 개발이나 보강, 지역문화재를 이용한 문화이벤트 행사의 개발을 위해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와 유물의 발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위하여 문화유적의 원형보존과 전통문화 유적의 복원추진, 무형문화재 계승 및 기록보존과 전승자 발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역문화의 발굴을 통해 일부는 공연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볼거리 관광과 체험관광을 강화하는 한편 여러 가지 문화관광상품과 예술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도시의 특색을 살려 문화관광산업과 관광예술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국내외 유입관광객은 증가할 것이고 지역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한 차원 높은 문화자산을 향유할 수 있는 혜택을 안겨 줄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첫째, 관광의 일상생활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관광에 대한 인식 전환의 유도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지역내 관광자원을 체험관광이나 테마관광, 문화관광 등으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의 산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둘째,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event) 개발 방안이다. 예를 들어 다도해에 관광유람선을 띄워 다도해의 풍광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인위적인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이다. 다도해 해상에서의 뱃놀이는 가칭 '뱃놀이축제'라고 하여 불꽃놀이를 겸하거나 다양한 수상행사를 곁들일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모험관광을 다도해에 접목하여 요트 등을 시급히 시도해 보고, 갯벌이 감고 도는 연안의 섬과 파도가 끼고 도는 먼 섬의 정경과 다도해를 둘러보는 경비행기를 운항할 수도 있다.

셋째, 관광관련 하드웨어나 시설 개발이다. 예를 들어 해안가 득길을 따라 다도해의 해변 정취를 살릴 수 있는 관광순환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서남해안을 따라 책정된 77번 국도의 연결사업처럼 관광도로의 개설은 여러 섬을 연결해 상승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이들 차량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환상적인 해변 투어 드라이브 코스 구실을 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도청의 목포권과 가까운 다도해 섬의 특성상 자동차로 지나치는 여행객을 유인할 수 있어 다도해의 관광자원으로서 명소로 자리매김 될 개연성이 크다.

넷째, 레저나 체험시설을 보다 확대하여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머물고 경유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지에서의 체험은 관광지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관광경험의 정도는 관광동기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eerli & Martin, 2004).

따라서 등급별 숙박시설을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등 여행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또 남도민박제도를 문화체험과 향토성 체험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어메니티 홈스테이(amenity home-stay)로 더욱 발전시켜 이를 선호하는 특수한 여행객의 욕구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기존 섬축제와 더불어 철에 따라 부대행사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문화행사와 민속행사를 활용하여 추가로 문화축제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이 섬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유인한다. 관광상품이 일회성 눈요기로 끝나지 않도록 관광상품을 특성화함과 동시에 체험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여행객에게 섬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면서 재방문의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한다. 구체적 사례로 다도해를 특별히 느끼면서 풍물을 접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홍도의 풍광, 완도의 김과 흑산도의 젓갈 등 다도해의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계속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관광상품에 대한 국내외적인 홍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신비의 바닷길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 진도영등재 등의 축제에 국내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당 행정기관과 협조함과 동시에 민간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째, 녹색관광(green tourism)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 때 붐을 이루었지만 매력도가 떨어진 관광농원의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관광객들은 인위적인 요소가 지나치지 않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을 점차 둘러보고 싶어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제관광 전문가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향후 관광산업의 최우선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덟째, 지역내 관광안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잠재적인 관광객에 대한 흡인요인(pull factor)으로 작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관광관련 각종 안내물을 포함하며 관광시설물과 관광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체계도 포함한다.

아홉째, 일본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이다. 특히 중국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들이 수도권과 기존 관광단지 위주로 관광을 다니는 요인을 분석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항공로와 해양항로가 개설될 경우 지리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간상으로도 가까운 이 지역의 우위와 차별성을 살려 적극 유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대책의 바탕에는 지역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문화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래문화에 휩쓸려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며, 그 지역 고유의 문화와 문화상품을 가져야 한다. 또 세계화시대를 맞아 지방화(localization)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역의 문화활동과 문화산업의 추진주체는 중앙이 아닌 지방의 몫이 되어야 한다. 즉 문화라는 지역적 요소가 가미된 의제는 국가 보다

는 지역사회가 나서야 생명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4.3. 홍도의 문화관광 발전 방향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⁷⁾는 섬 전체가 해상국립공원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특이한 해양생태환경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전국에서 4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 전남 바다관광자원의 상징이자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규모 관광객의 입도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부족이 큰 사회문제화하고 있고 동시에 섬 주민들도 관광객의 대량 유입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홍도의 매력은 계속 많은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더 나아가 각종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섬주민들은 내도 관광객의 숫자가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관광콘텐츠의 다양화 미비,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의 부족과 열악한 상태로 인하여 현재는 거의 정체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는 법적인 규제를 비롯하여 재정적인 여건의 미비, 민간투자요인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도에 관광객의 추가 입도를 유도하려면 관광수용태세의 향상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관광서비스 마인드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홍도에 대한 매력도를 부수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홍보대책도 세련되게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홍도의 관광콘텐츠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향으로 테마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의 관광콘텐츠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IT를 활용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신세대와 IT 환경에 익숙한 고급 관광수요자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홍도의 자연과 도서문화를 활용한 관광스토리텔링도 홍도의 매력을 높이고 집객을 위한 유용한 수단 중 하나다. 다양한 관광전문가에 의한 관광스토리텔링이나 지역민 중에서 관광에 안목이 있는 관광종사자에 의한 관광스토리텔링 작성도 다양한 아이디어나 모티브를 담고 있다면 홍도를 상징하는 뛰어난 관광이야기가 될 수 있다.

Cohen(1985)은 관광지의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나 가이드를 통한 관광자원 설명은 정보전달 역할을 하는등 의미 있는 시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홍도에 대한 관광스토리텔링은 홍도의 특징과 자연 및 인문에 대한 특성과 특징을 잘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홍

7) 홍도는 전기와 수도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였지만 의료시설이라고는 보건직만 근무하는 진료소만 운영되고 있을 뿐, 고등교육시설, 체육 및 문화시설, 기타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편이다. 아울러 태풍이나 강한 파도가 몰아쳐 통행이 제한되는 횡수도 1년에 평균 117일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물론 화장실도 마음대로 짓지 못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다.

도의 관광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첫째, 홍도의 지명 유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홍도(紅島)라는 이름은 홍도의 암석구조가 붉은 색을 띠고 있어 석양이 비칠 때 붉은 빛으로 변하는 점에서 비롯된 만큼 ‘붉은 색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홍도는 기암절벽과 해식애,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런 천연자원의 명승지적 요소를 부각해야 한다.

셋째, 홍도는 외딴 섬으로서 격리되어 있어 섬이라는 고유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흑산도의 부속 섬으로 흑산면에 속해 있어 격리된 섬사람들이 ‘육지를 그리워하며 속이 검게 됐다’는 테마를 활용하는데 적격이다.

넷째, 홍도 주변 바다에는 일명 ‘흑산도 홍어’가 널리 분포하는 점을 내세워 홍어는 홍도 인근바다, 즉 ‘홍어의 놀이터’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테마를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다섯째, 홍도는 서남해안 끝에 해당된다는 점도 ‘저 멀리 바다 끝’이라는 테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먼 곳에 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다.

여섯째, 중국에 가장 가깝다는 점도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곳에서 소리를 지르면 중국 사람들이 귀기우려 듣는다는 픽션도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소재와 특징을 반영하여 관광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현실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에 대해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유도한다면 테마와 재미가 있는 서남해안의 다양한 섬 이야기는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V. 토의 및 결론

21세기들어 신해양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으로서의 환경과 관광측면에서 가치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관광과 관광지 환경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환경으로 대변되는 매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관광목적지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Mellor, 2003). 따라서 생물생태계 시원(始原)의 특성을 가진 섬은 위험하게 격리되었을 때는 섬사람의 삶이 공포였지만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웰빙 삶의 한 공간이자 미래 발전지향적인 터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양관광의 한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이 관광의 한 수단으로 정착되면서 역사와 문화 이야기 거리가 풍성한 도서는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균형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적지임과 동시에 신경지(new frontier)로 꼽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서개발은 도서와 해양의 연계 체계하에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야 하며 제주도의 세계섬문화축제처럼 의욕과 목표는 좋지만 용두사미 격의 실패로 귀결된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지방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종 콘텐츠 확보와 활용 등 문화관광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섬의 민속문화유산과 문화관광자원도 물리적인 개발과 병행하여 문화관광이 입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개척지인 도서와 해양의 가치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면 도서개발도 외형적 개발에 그쳐 내생적인 섬의 개발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즉,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아이덴티티)을 고려하지 않으면 섬개발의 폐해가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난개발이나 자연파괴형 개발, 또는 민속문화의 붕괴위에 외지인에 의한 주민소외형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섬에 대한 인문·민속적인 콘텐츠와 지형적·자연적 자원을 관광테마로서 활용하는 관광스토리텔링 기법이 주목받고 있다.

또 관광은 상품화되고 판매 대상으로 간주된다(Ashworth & Voogd, 1995). 게다가 소비자는 상품이 아니라 상품에 담겨있는 스타일과 이야기, 그리고 경험과 감성에 따라 만족추구와 가치창출을 중요하게 여긴다(Rolf Jensen, 2005).

신관광(new tourism) 시대에 섬에 대한 신기하고 독특한 스토리는 관광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외래 관광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섬에 대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내생적인 관광개발, 실현가능한 관광이란 점이 함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봉룡 외 6인(2005), “섬과 문화-역사와 자연 그리고 관광,” 경인문화사.
- 권문상(2002), “해양법상 섬 제도와 독도,” 한국해양연구원.
- 김성귀(2007), “해양개발을 위한 해양관광론,” 현학사.
- 김성후(2010), “서남해 섬 문화의 사회·경제적 의의와 관광자원화방안,” 해양관광학연구, 제1집.
- 김숙자(2009),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의 효과성 검증연구: 초등영어 이해력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의숙 외 1인(2005), “문학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도서출판 역락.

- 김종일(2010), “자연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지형·지질자원을 중심으로-,” 리전인포, 통권 제228호.
- 김준(2004), “어촌사회변동과 해양생태,” 민속원.
- 김희정(2012), “관광지스토리텔링과 경험적가치, 매력지각 및 행동반응 관계연구,” 우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뉴시스(2006. 8. 31), “제주지역 축제 민선 후 8배 늘어, 경비 75% 官의존”.
- 문병채(2000), “서남해 도서문화자원의 GIS기반 멀티미디어컨텐츠 개발과 활용,” 지역개발학회 하계학술발표회논문집, 116-131.
- 박광순(1996), “전남의 해양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제7집, 200.
- 손형섭(2000), “광역목포권 개발의 과제와 기본방향-서해안 개발의 평가와 전망,” 지역개발학회 하계학술발표회논문집, 2-17.
- 송태갑(1999), “향토축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리전인포, 제47호.
- 신순호(1998), “도서지역 문화자원의 활성화방안,” 도서문화, 제16호, 393-396.
- 안중수(2000) “남도 새천년의 새로운 문화관광전략 연구,” 워킹페이퍼, 창간호, 28-43.
- 오성수(2006), “그린투어리즘의 블루오션전략,” 전남대학교출판부.
- 이건철(1998), “전남지역 해양관광 개발전략-21세기 광주전남 지역발전과 관광산업,”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87-134.
- 이기철(1996), “문화자원과 지리정보체계,” 도서문화, 제14호.
- 이종범(1999), “문화관광산업의 회고와 향후과제: 문화관광산업 진흥의 기반과 정도,” 광주전남비전, 제21권 제20호, 15-30.
- 이재천(1994), “관광어촌,” 백산출판사.
- 정강환(1998), “광주·전남지역 문화관광의 활성화방안-21세기광주·전남지역발전과 관광산업,”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59-86.
- 정근식(2004), “해조류양식 어촌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 조경만(1996), “서남해 도서지역 연구의 동향과 문화영역 연구의 필요성,” 도서문화, 제14호.
- _____ (1998), “서남해지역 문화자원의 활성화방안”, 도서문화, 제16호, 417.
- 추명희(2000), “전남지역 이벤트관광의 성장과정과 활성화 방안-진도영등제를 사례로,” 문화마당, 창간호, 44-63.
- 한범수 외 1인(1994), “歷史文化 觀光코스 開發方案,” 교통개발연구원.
- Ashworth, G.J. and Voogd, H.(1995), “Selling the City: Marketing Approach in Public Sector Urban Planning,” London, UK: Belhaven Press.
- Berli, A. and Martin, J.D.(2004), “Factors Influencing Destination Imag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 868-897.

- Brown, J.S., Denning, S., Groh, L. and Prusack, L.(2005), "Storytelling in Organizations: Why Storytelling is Transforming 21st Century Organization and Management," *Elsevier Butterworth-Heinemann*, Oxford.
- Cohen, F.(1985), "The Tourist Guide: The Origins, Structure and Dynamics of a Ro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2, 5-29.
- Mellor, S.C.(2003), "Cross-category Effects of Induced Arousal and Pleasure on the Internet Shopping Experience," *Journal of Retailing*, 78, 31-40.
- Rolf, J.(2005), "드림소사이어티," 서정환 역, 서울: 도서출판 글누림.
- Saarinen, J.(2004), "Destinations in Change: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Tourist Destinations," *Tourist Studies*, 4(2), 161-179.

K C I

A Study on the Culture Tourism Industrialization and Tourism Story-telling of Island Resources

Sung-Hoo Kim*

Sung-Soo Oh**

Abstract

The paper is focused both on the utilization of tourism story-telling and the upgrade of the tourism image of the small islands of the Province of Chonnam in the Southern Sea. The storytelling which requires a less cost in the tourism development of the islands attracts more tourists by making them get interested in something special or a various remarkable sites of the islands, and improves the satisfaction of inbound tourists in the region by giving them a variety of particular experiences or special tour courses.

In Korea, islands have been also historically isolated from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mainstream residents in the mainland.

However, in the post-industrial period, islands shed new light on the new source of tourism, as different types of tourism industry develop and evolve in recent decades and a new period of marine tourism shows up nowadays. In other words, islands have been regarded recently as a remarkable tourism resources that contain ecological and folkloristic values, historical sites, cultural heritages and finally natural beauties.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variety of tourism story-telling by utilizing various resources of islands. To implement regional tourism policy more effectively, each level of regional government has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ourism story-telling by taking advantages of island resources, and needs to cooperate with related manpower or specialists more actively.

Keywords : tourism storytelling, tourism resources, island tourism development, marine tourism, participating tourism

*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Business Administration, Dongshin University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University

к с і